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 한국 유치

강화순 (한국양돈수의사회장)

한국양돈수의사회는 한국양돈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속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아시아 양돈수의사대회를 2003년 서울에서 1차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남아공 더반에서 2012년 IPVS를 한국 제주에서 개최하도록 유치를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1) 한국양돈수의사회 APVS 창립 제1회 대회 서울 개최

2002년에 한국양돈수의사회는 4월에 제 3회 연례세미나를 일본 돈병임상연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양돈전문 수의사들을 초청하여 아시아양돈수의사회(Asian Pig Veterinary Society, 약칭

APVS)를 창설하였다.

세계 최고의 소비시장인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양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양돈수의사회의 주도로 역사적인 APVS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2003년 6월에 제1회 아시아양돈수의사 대회(1st APVS Congress)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하였다.

- The 1st congress of Asian Pig Veterinary Society
 - 개최지 : 대한민국 서울
 - 일 시 : 2003년 9월 21~23일
- The 2nd congress of Asian Pig Veterinary Society
 - 개최지 : 필리핀 마닐라
 - 일 시 : 2005년 9월 19~21일
- The 3rd congress of Asian Pig Veterinary Society
 - 개최지 : 중국 무한
 - 일 시 : 2007년 4월 22일~25일
- The 4th congress of Asian Pig Veterinary Society
 - 개최지 : 일본
 - 일 시 : 2009년 10월 26일~28일

2) 2012년 IPVS 한국 유치 성공

세계양돈수의사회(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IPVS)는 1969년에 영국의 캠브리지(Cambridge, United Kingdom)에서 세계각국의 양돈과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생산자 그리고 관련업계 인사들의 학술.기술 정보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약 500여명이었던 회원수가 2006년 현재 100여개국 회원국 5,000여명의 회원으로 증가된

바 있다.

IPVS는 매 2년마다 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는데 2008년 6월 22~26일 제20회 대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2012년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였다.

한국양돈수의사회는 2012년 한국유치를 위해 2년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여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 대한수의학회 이문한이사장, 대한양돈협회 김동환회장, 한국양돈연구회 안기홍 회장 등 양돈관련 단체, 업계, 제주도 관계자 및 한국양돈수의사회 강화순회장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유치 홍보를 하여 유치를 성공시켰다.

한국유치준비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양돈산업 아시아 최대 규모 △개최대륙의 균형성(아시아는 94년 태국이 유일한 개최국) △제주의 우수한 관광환경 △풍부한 국제경험

△정부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적극 홍보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체코, 벨기에 등 총 4개국이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1차 투표결과 우리나라는 37.35%를 득표, 멕시코(38.57%)에 이어 2위를 차지해 혹시 떨어지지 않을 까 하는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다.

한 국가의 득표가 전체투표자의 50%를 넘어야만 유치를 결정하는 서바이벌 투표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는 11.87%를 득표한 벨기에가 가장 먼저 탈락이라는 고배의 쓴잔을 마셨다.

긴장감이 잔뜩 고조된 2차 투표에서 'Go! KOREA'가 확정됐다. 2차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투표자의 52.34%를 득표, 39.9%를 득표한

멕시코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유치성공'이라는
벽찬 감격을 맛봤다.

투표결과가 나오자 투표장 곳곳에서는 '대한민
국' 환호가 넘쳐났고 일부 유치위원들은 기쁨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국유치위원단은 행사기간 내내 "WHY,
KOREA"를 외치며 한표라도 끌어 모으려고 최선
을 다했다. 특히 체계화된 조직력과 일사분란한
움직임으로 서양인들 속에서 한국인의 당찬 저력

을 보여줬다.

제 21차 대회는 2010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2012년 제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 지금부터 전 양돈업계와 함께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양돈업의 발전과 양돈 수의사의 위상을 높
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